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하고 아쉬움이 남지만, 서로에게 고마움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이자 젊은 불자의 기수인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역시 소중한 마음으로 2014년도 52년차 정기총회를 맞이했으니,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원력으로 한 해를 이끌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대학생 청년 불자 포교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임하는 신경선 회장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5년을 이끌어갈 53년차 회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대학생 포교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는 소임자와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 모두에게 반가움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불련은 1963년에 창립하여 지난 50여년간 불자들의 미래를 약속하고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올 해는 지난 50여년의 활동을 이어 한국 불교의 빛나는 100년을 기대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삶의 가치관을 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여름 영캠프에서 주제로 삼은 “우리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를 평생 화두로 새기고 정진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주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학생 불자가 대불련을 통해 보다 참된 가치관을 정립하여 한국 불교의 빛나는 앞날에 우뚝 서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52년차의 활동을 원만 회향하는 신경선 회장과 중앙집행위원,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는 신임회장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생 불자들이 보다 큰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를 는 데 힘을 보태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중심에 항상 우뚝 서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전국에서 대학생 포교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일선의 대불련 지부장과 지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불자, 그리고 홍지연 지도위원장과 지도위원단 등 모든 실무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지혜로움이 항상하기를 축원합니다.